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1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5년 10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10 October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해

최효미 부연구위원

I. 지역 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적정 배치의 필요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지역별 적정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전국을 기준으로 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총 공급량은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로는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 있음¹⁾.

대다수의 영유아는 등하원 시간이 20분 이내인 기관을 이용하며²⁾,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³⁾ 보다 세분된 지역 단위인 시군구별 공급 현황 파악이 중요함.

-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대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거주하는 영유아가 적어 대체적으로 정원충족률이 저조함.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이 다소 적더라도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공급이 지역 내 유아교육·보육 수요를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하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추가 공급은 필요치 않음.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높은 지가 및 임대료 등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여 기관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격차에 따른 지역 유형화 연구』(최효미·이정원·김진미, 2015)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이정원(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별 불균형 해소해야. 육아정책브리프 제33호.

2) 이정원·정주영·최효미·김진미(2014). 사회통합관점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03.

3)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91.

4)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우선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지역 내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 비율은 대도시는 25.8%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0.9%, 도서벽지는 97.9%(최은영, 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p2), 농어촌을 중심으로 공립 유치원 설치 비중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I.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시군구별로 살펴본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현황(그림 1) 참조)을 살펴보면, 공급률이 높은 지역은 우측 상단(강원도), 우측 중앙(경상북도), 중앙 하단(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접경 산간지역), 좌측 중앙(충청남도)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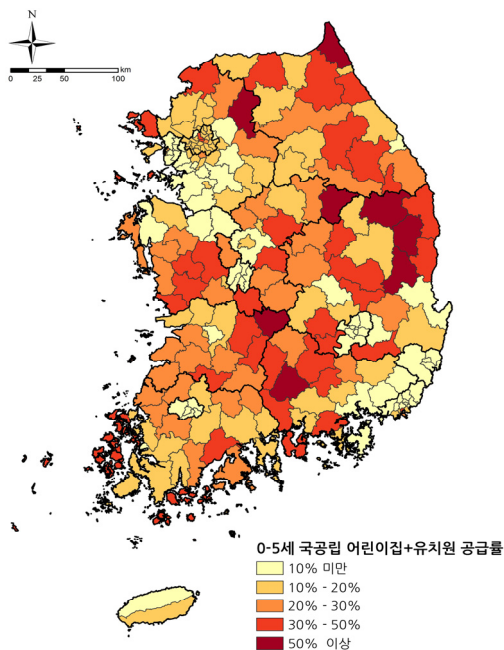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30%이상인 시군구는 총 47개로, 서울에 2개구(종로구, 중구), 부산 1개구(동구), 인천 2개구(강화군, 옹진군)를 제외하면, 나머지 42개 시군구는 '도' 지역 내에 위치한 시군구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50%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9곳이 있으며, 경북 봉화군, 경남 산청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 전북 무주군, 경기 가평군, 충북 단양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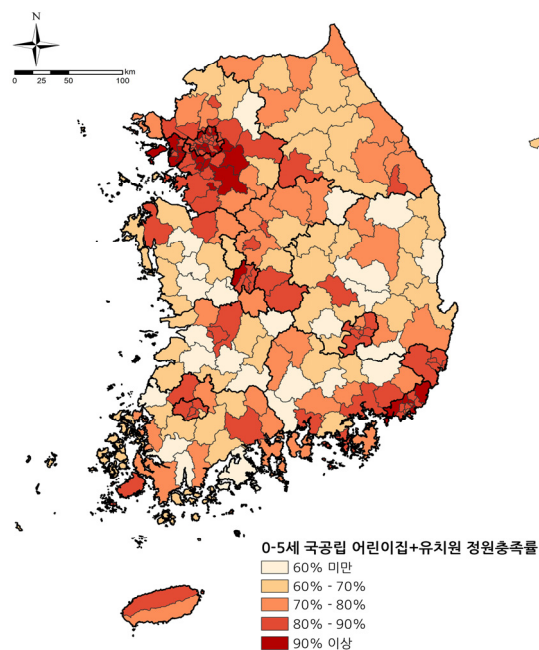
한편, 서울 내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10%~20% 사이로, 서울은 구별로 균질적인 공급률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10%미만으로 낮은 시군구는 우측 하단의 부산광역시 시에 속한 10개 시군구와 좌측 상단의 인천광역시의 6개 시군구 및 경기 남부의 11개 시군구 등 총 66개 시군구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군구별 공급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군구별 정원충족률



주: 1) 굵은 선은 시도별, 가는 선은 시군구를 구분함.

2) 공급률=(정원÷0-6세주민등록아동수)×100,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으로 산출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2) KERIS(2014). 유치원 정보공시.

3) 행정자치부(2014. 12). 주민등록인구통계(0-6세별).

[그림 1] 시군구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현황

- 한편, 시군구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인 시군구는 서울의 8개구, 경기도의 8개, 부산 7개, 인천 5개, 대전 1개 등 29개 시군구였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이 80~90%인 시군구는 총 80개로, 서울, 경기 남부, 인천, 부산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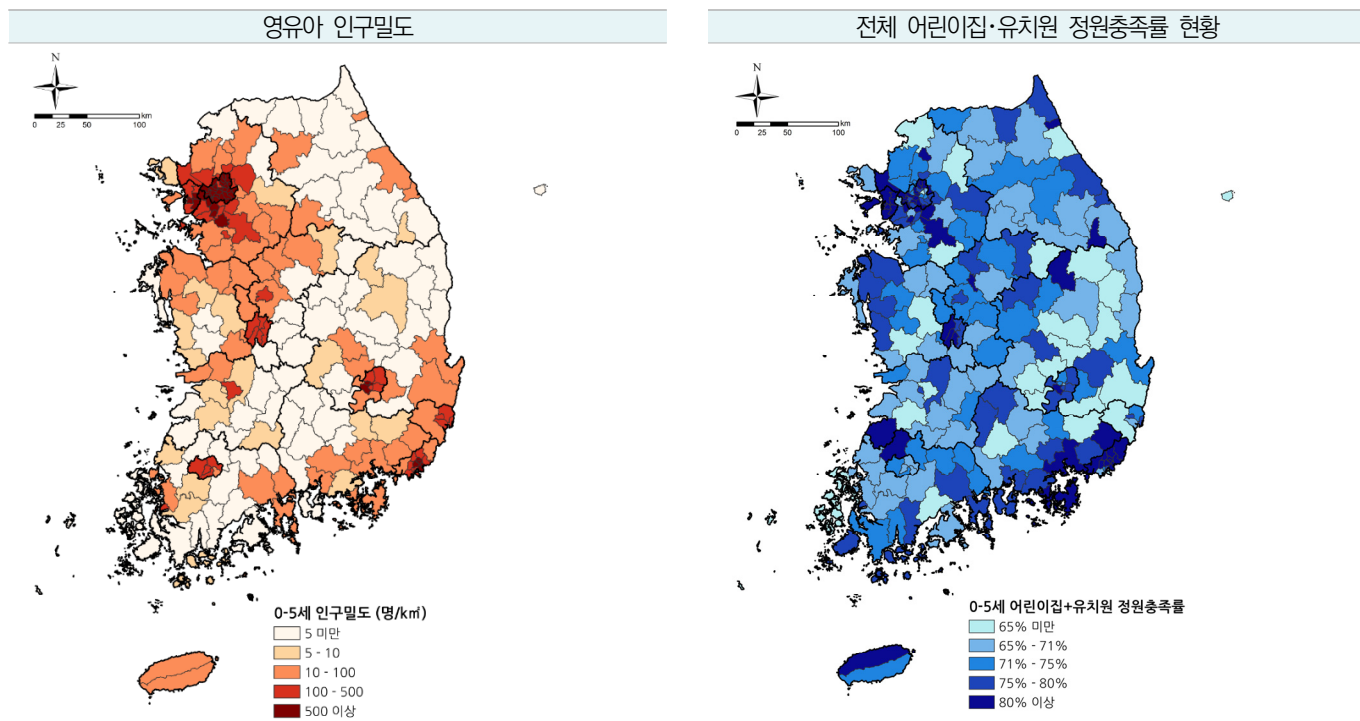
반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인 시군구는 총 26개로, 경북에 속한 6개의 시군과 충남 5개, 전북 5개, 전남 4개, 경남 4개, 경기 1개, 충북 1개 시군이었음.

두개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정원충족률은 낮은 경향을 보임.

Ⅲ.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요 현황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

- 시군구별로 살펴본 영유아 인구밀도 및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 현황은 [그림 2]와 같음.
- 지역 내 보육 수요 총량을 가늠해보기 위해 [그림2]의 시군구별 영유아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그림1]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특정 지역은 훨씬 더 밀집되어 있음.



주: 1) 굵은 선은 시도별, 가는 선은 시군구를 구분함.

2) 영유아 인구밀도=0~6세 주민등록인구÷면적(km²), 공급률=(정원÷0~6세주민등록아동수)×100, 정원충족률=(현원÷정원)×100으로 산출함.

자료: 1) 행정자치부(2014. 12). 주민등록인구통계(0~6세별).

2) GIS 시군구별 면적.

3)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4) KERIS(2014).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 현황자료.

5) KERIS(2014). 유치원 정보공시.

[그림 2] 시군구별 영유아 인구밀도 및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 현황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 부산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된 양상을 보임.

반면,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북도에 속한 다수의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인구 밀도는 1km²당 5명 미만으로 매우 낮은 밀도를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률이 높은 지역은 지역 내 영유아가 적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내 영유아가 많은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임.

저소득 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설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이 집중공급 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함.

-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이 적을지라도, 민간(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이 지역 내 보육 수요를 수용할 만큼 충분하다면, 지역 내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따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임.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민간(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포함하여, 시군 구별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을 산출해 보았음(그림 2의 좌측 지도).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이 80%이상으로 높은 시군구는 지도의 좌측 상단(서울 및 인천, 경기 남부)과 우측 하단(부산 및 경남 남부 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음.

반대로 지도의 우측 중앙(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65%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높은 현상을 보임.

IV. 제언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이 시급.

- 실수요를 고려할 경우, 향후 영유아 인구 밀도가 높고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정원충족률이 높은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 인천,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함.

지가 및 임대료가 높거나,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민간(사립) 어린이집·유치원 설치를 통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 또한 높은 지역들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 서비스의 증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이 시급함.

다만, 지속적으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과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최효미 부연구위원 hmchoi@kicce.re.kr